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11월 ~ 12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FSSAI, 기능성, 식품, 규제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FSSAI, 기능성, 식품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5. 4. 8.
인도 기능식품시장,
24억 달러 규모로 성장

2015.9.11.
인도 FSSAI,
건강보조식품과
기능식품 신규규제
제안

2016. 7. 6.
인도 FSSAI,
약효식품 규제 발표

2016. 11.24
인도 FSSAI,
기능성식품 및 보조제
규제 발표

핵심이슈
도출

“인도, 기능성식품 및 보조제 규제 발표”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인도, 기능성 식품 및 보조제 규제 발표

인도 식품안전표준기관(FSSAI)는 기능성 식품 및 보조제에 관한 규제를 발표했다. 해당 식품 생산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FSSAI는 현재 해당 규제가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이며, 건강 보조제, 기능 식품, 식이요법용 식품, 의료 목적의 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제에 따르면, 모든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양은 인도 의학 연구 협의회에서 정한 일일 권장량을 넘지 않아야 한다. 건강 보조 카테고리에 속하는 식품은 일일권장량의 15% 이상의 영양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고영양' 표기를 위해서는 RDA규정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규정은 기능성 식품의 각 부문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 보조제 생산자는 패키지 문구에 '건강 보조제, '약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포함해야 하며, 제품의 부작용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기능식품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체중감량이나 조절을 위해 끼니를 대체 하도록 만든 제품은 800칼로리 이상 1,200칼로리 이하여야 한다.

인도정부는 최근 식품가공업 시장에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인도 가공식품업부서(MOFPI)에서는 식품 가공업을 매우 중요한 미래산업으로 분류해두었으며, 인도정부는 최근 신규 제조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했다. 인도 시장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상승함에 따라 관련제도의 정립이 수반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해당 규제는 18년 1월부터 강제시행되지만 이미 운영에 돌입했으므로 국내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기능성 식품의 부문별로 상세한 기준을 제공하므로, 인도 시장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새롭게 변화하는 기준을 제품에 적용시켜 시장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더불어 인도 내에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FSSAI의 인증이 필요하다.

자세한 규제와 인증 내용은 인도 식품안전표준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fssai.gov.in/home>)